

대구주보

연중 제16주일 (농민 주일)

2014. 7. 20. (가해) 제1899호

전례와 선교의 활성화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_053)250-3048~9_ <http://www.daegujobo.or.kr>



대구 가르멜 여자 수도원 내 성당
사진 _ 홍창익 비오 신부

† 오늘의 전례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마태 13,24-43 참조)

가라지는 밀과 거의 똑같이 생겨서 이삭이 패기 전에는 눈으로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가라지를 뽑아내자고 하는 종들을 말린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이삭, 즉 행실이 전부 드러나기 전에는 사람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지만, 인자하신 하느님께서서는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부족한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본받아야 하고, 또 그 자비를 남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1독서 지혜 12,13,16-19 **제2독서** 로마 8,26-27 **복음** 마태 13,24-43

입당송 보라, 하느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주님은 내 생명을 떠받치는 분이시다.
저는 기꺼이 당신께 제물을 바치리이다. 주님, 좋으신 당신 이름 찬송하리이다.

화답송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영성체송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오철환 바오로 신부 | 고성본당 주임

밥상머리 단상(斷想)

그 옛날 수돗가에는 : 옛날의 주택은 지금처럼 아파트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한옥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개 집 마당에는 수돗가가 있었습니다. 수돗물도 귀한 때라 수도꼭지 옆에는 따로 지하수를 올려 쓰게끔 손으로 작동시키는 펌프가 있는 집도 꽤 있었습니다. 수돗가 옆에는 대개 장독대가 놓였으며 빨래를 위해 차돌 같은 것도 옆에 있었습니다. 가사 대부분은 수돗가를 맴돌며 이뤄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 기억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수돗가에는 당연히 있었던 하수구의 풍경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집집마다 물을 거르는 체 같은 것이 있었는데 주로 망가진 플라스틱 체를 받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용도는 오물을 걸러내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혹시 불린 쌀을 씻다가 흘러버려질까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곳 하수구 체에 걸려진 쌀을 발견하면 다시 주어모아 씻었고 함께 밥을 지었습니다.

떠도는 이야기 1 : 어떤 강도가 은행을 털러 갔답니다. 하지만 설치된 비상경고음 때문에 경찰이 즉시 출동했고 강도는 그만 꼼짝없이 갇힌 신세였습니다. 은행이 포위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강도는 한 여성 은행원을 인질로 잡고 충을 겨누며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강도에게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냐?” 그러자 강도는 곧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초, 초, 충알을 달라!”

떠도는 이야기 2 : 건망증 증세와 치매 증상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만일 자신

이 사는 집 주소를 까먹으면 건망증이고 집이 어딘지 모르면 치매랍니다. 마찬가지로 아내 생일을 잊어버리면 건망증, 아내 얼굴을 잊어버리면 치매랍니다. 무엇보다도 건망증은 그 증세가 심해질수록 걱정되지만 치매는 증세가 심해질수록 아무 걱정이 없어진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 : 예전에 우리는 쌀을 허투루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아끼는 마음을 넘어서 한 톨의 쌀이 있기까지 꼭 필요한 자연의 섭리를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를 위해 애쓰는 어떤 농부의 땀이든 가볍게 여기는 일이 없었습니다. 특히 눈앞에 놓인 먹을거리를 두고 이를 생산한 모든 분과 함께 자연의 섭리에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또 당시 어른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식사 때 밥풀 하나라도 남기면 심한 꾸중이 이어지곤 했습니다. 평소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당장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느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분께 찬미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마땅히 감사할 사람에게 감사할 줄 모른 채 살아간다면 마치 충알을 갖추지 못한 빈충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혀 감사를 모르는 인생은 마치 아무 걱정 없이 지내는 그래서 치매를 앓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모로 밥상머리 교육을 무척 아쉬워합니다. **필문**



“젊은이여 일어나라! 순교자의 영광이 너희를 비추고 있다”



아시아와 한국의 가톨릭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한 자리에 모이는 청년 신앙 축제가 오는 8월 10일부터 17일까지 각 교구와 대전교구 일대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1984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만드신 세계청년대회(WYD: WORLD YOUTH DAY)를 본받아 아시아주교회의(FABC)에서 주최하여 1999년부터 시작된 아시아청년대회(AYD: ASIA YOUTH DAY)와 한국주교회의(CBCK)에서 주최하여 2007년 제주교구에서 시작되었던 한국청년대회(KYD: KOREA YOUTH DAY)가 ‘젊은이여 일어나라! 순교자의 영광이 너희를 비추고 있다’를 주제로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1999년 타이 후아한에서 열린 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여섯 번째로 열리는 이번 아시아청년대회는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나라를 방문하시는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합니다. 대륙별로 진행되는 아시아청년대회에 교황님께서 참석하시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청년 1,000여명과 아시아 22개국 청년 1,000여명 등 2,000여 명이 참가하게 될 이번 대회는 본 대회에 앞서 10일부터 12일까지 대전, 군중교구를 제외한 전국 14개 교구로 흩어져 각 교구에서 마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구대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대구대교구에서는 홍콩과 베트남 청년들이 교구 청년들과 함께 교구장 대주교님을 예방하고 계산성당과 인근, 한티순교성지 등을 방문하게 됩니다. 마침 11일에는 청년교류 모임을 위해 자매교구

인 오스트리아 팔츠부르크 교구 청년들도 우리 교구를 방문해 더욱 풍성하고 뜻 깊은 시간을 갖게 됩니다.

교구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13일 대전교구 솔피성지에 집결하여 개막미사를 시작으로 17일까지 본대회가 진행됩니다.

2007년 제주교구, 2010년 의정부교구, 그리고 올해 세 번째를 맞는 한국청년대회는 아



시아청년대회의 본 대회 개막 다음날인 14일, 약 4,000여명이 참가해 개막미사를 시작으로 17일까지 일정이 이어집니다.

14일부터는 두 대회가 같은 주제로 진행되는 데 ‘우리 신앙의 근원을 찾아서’를 주제로 한 14일, ‘두드려라 닫힌 마음을’이라는 주제로 진행할 15일에는 교황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젊은이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하는 여정, 나, 우리, 순교자,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16일에는 6,000여명이 함께 걷는 도보 성지 순례를 한 뒤 저녁 시간에 마지막 축제를 즐깁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를 주제로 진행되는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주례하시는 파견미사를 봉헌하는 것으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필문**

대구지역 순교자 20위의 삶을 묵상하며 ⑬

주님의 꿈에 빠진 분

김세박 암브로시오 (1761 - 1828)의 순교이야기



김세박 암브로시오
(1761 - 1828)

어떻게든 돈도 더 벌고, 차도 새로 바꾸고, 승진도 잘하기 위해 애를 쓰며 사는 것이 우리 현실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 이런 저런 꿈에 빠지게 된다. 돈에 대한 꿈, 차에 대한 꿈, 승진에 대한 꿈...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꿈이 있는가? 그런 꿈을 따라 목적을 이루고 나면 또 다른 꿈이 우리를 기다린다. 그렇게 꿈을 쫓아 정신없이 살다 보면 이웃도 멀어지고 하느님도 멀어져 외로운 내 모습을 보게 된다. 순교자 김세박 암브로시오는 주님의 꿈에 빠졌다.

1761년 한양의 역관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된 직후 이내 신앙을 받아들였다. 그는 먼저 가족들에게 교리를 열심히 가르쳤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격이 포악한 아내는 그의 신앙생활을 심하게 방해하였고 자주 큰소리로 천주교에 대해 많은 욕설을 퍼부었다. 하느님에 대한 모욕을 견딜 수 없던 그는 집을 떠날 결심을 한 후 가족들과 작별인사를 하였다. 그는 1791년이 지나 지방의 천주교우집으로 내려가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며 그의 말을 듣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쳤다. 그는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교회서적들을 베껴 써서 교우들에게 팔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그는 조선에 입국한 주문모 신부를 만나 성사를 받는 행운을 누리기도 하였다.

거처가 없던 그는 이따금 더 깊은 신앙생활을 하고자 산 속으로 들어가기에도 몰두하였고, 식생활을 절제하는 데 힘썼다. 항상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며 주로 무지한 이들을 가르치고 어린아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며, 냉담자들을 잘 보살폈다. 특히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씩 덕행으로 이끄는 데 모범을 보였기에 그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였으며, 그가 가는 곳마다 열성이 다시 타오르게 함으로써 사방에서 그를 '암브로시오 스승'으로 불렀다. 신유년과 을해년 박해를 잘 피했으나 1827년 정해박해가 일어나자 그는 포졸들의 수색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안동 관아로 가서 자신이 천주교 신자임을 알렸다. 한 달 후 그는 대구로 이송되어 잔혹한 매질과 심문을 받고 사형을 언도 받은 후 1828년 12월 옥중에서 순교하였으니 그의 나이 67세였다.

순교자 김세박 암브로시오님! 저희도 세상의 꿈이 아니라 주님의 꿈에 빠져 이미 세상에서부터 나눔의 행복을 살도록 빌어주소서. **▶▶▶**

글 대구대교구
시복시성위원회

그림 김효애
(크리스티나)

이 사람을 아시나요? - 이름난 가톨릭 신자들

충성과 용기의 표본

3세기 경, 플로리아노라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오스트리아 지방에서 태어나 졸병으로 군에 입대한 플로리아노는 용맹하고 인덕이 있어 지휘관으로 승진하고, 마침내는 군단장이 되기에 이릅니다. 제국의 국경을 지키는 임무 외에 플로리아노는 지원자를 모아 소방대를 창설하고 국경 도시들의 재난 방지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플로리아노 장군의 소방대는 아주 유명해져서 유럽의 여러 도시에 그것을 본뜬 방재 의용대가 생겼습니다.



303년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대대적인 그리스도교 박해를 시작했을 때 황제의 명에 따라 모든 군대 지휘관들은 자기 부대에서 그리스도인을 색출해 처형해야 했지만 플로리아노는 이 명령에 불복합니다. 로마에서 온 황제의 칙사가 이교 신과 황제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요구하자, 플로리아노는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인이며 예수님 외에 다른 주님을 섬길 수 없노라고 대답합니다. 분노한 칙사가 플로리아노를 화형에 처하라고 명령하자 플로리아노는 “평생 불과 싸운 내가 이제 불꽃을 타고 하늘에 오르게 되었구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플로리아노의 소방대를 두려워한 칙사는 화형을 집행하는 대신 플로리아노의 목에 맷돌을 매달아 물에 빠트리려 죽였습니다. 성 플로리아노(c250~304)는 군인과 소방대원의 수호성인입니다. 성인의 충절과 용기는 널리 존경을 받아, 그의 이름을 딴 도시와 성이 중부 유럽 전역에 퍼져 있고 곳곳에 성인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꽃**

금주의 성인

7월 20일	성녀 마르가리타(동정순교자, 안티오키아), 성녀 빌제포르타(동정순교자) 성 안세지소(수도원장, 폰트넬, 770~833년), 성 엘리아(구약인물, 예언자, BC 9세기경) 성 아폴리나리스(베드로의 제자, 주교, 순교자, 라벤나, 2세기경)
7월 21일	성 다니엘(구약인물, 예언자), 성 라우렌시오(신부, 교회학자, 브린디시, 1599~1619년) 성 프락세데스(동정녀, 로마, 2세기), 성 빅토르(군인, 순교자, 마르세유, 290년)
7월 22일	성 다비오(신부, 증거자, 스코틀랜드), 성 메넬레오(수도원장, 메나, 720년) 성 반드레지실로(수도원장, 668년), 성 필립보 에반스(신부, 순교자, 영국, 1645~1679년)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신약인물, 예수의 제자, 부인, 1세기경)
7월 23일	성녀 로물라(동정녀, 아드모어, 6세기경), 성녀 안나(동정녀, 은수자, 콘스탄티노플, 918년경) 성녀 비르지타(과부, 설립자, 스웨덴, 1303~1373년), 성 리보리오(주교, 르망, 390년경)
7월 24일	성 테클란(주교, 아드모어, 6세기경), 성녀 레비나(동정순교자, 5세기경) 성 보리스(순교자, 러시아, 1015년), 성녀 크리스티나(동정순교자, 볼세나)
7월 25일	성녀 발렌티나(순교자, 308년), 성 야고보(사도, 순교자, 44년) 성 크리스토포로(순교자, 3세기경), 성녀 테아(순교자, 308년) 복자 루돌포 아과비바(신부, 순교자, 쿤콜름, 1550~1583년)
7월 26일	성 바르톨로메아(설립자, 1807~1833년), 성녀 안나(성모 마리아의 모친, 1세기) 성 에라스토(바오로의 제자, 주교, 필리피), 성 요아킴(성모 마리아의 부친, 1세기)



■ 중국 화북성 장상 수녀단 간담회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7월 10일(목) 오후 4시 교구청 별관 4회합실에서 중국 화북성 장상 수녀단 19명과 간담회를 가지셨다. 화북성 수녀단은 지난 6월 30일(월)부터 7월 11일(금)까지 샬트르성 바오로수녀회, 툇쥔교베네딕도수녀회, 예수성심시녀회에서 봉헌생활, 수도회 양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연수를 받았다.

사진 제공 : 월간<빛>

대구대교구 공식 스마트폰 앱 1.1 버전 업데이트!

교구 문화홍보실에서는 첫 번째 메이저 업데이트를 포함한 교구 스마트폰 앱 1.1 버전을 배포합니다.

1. 업데이트 내용

1) 메인 메뉴 3종 추가

- ① 월간빛 - 빛잡지 기사 월별 검색
- ② 기도문 - 가톨릭 기도서의 기도문과
교구 인준 기도문 수록
- ③ 평화방송 - 실시간 대구평화방송 라디오
청취(Wi-Fi 환경에서 청취 권장)

2) 교구사제 검색에 서품년도별 검색 기능 추가

- 3) 푸시알림 수신 기능 추가
- 4)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기능 추가
- 5) 서비스 문의 및 버그 신고,
E-Mail 발송 기능 추가



농민들의 시름을 외면 말고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2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7월 21일(월) 10:30 범어성당		7월 22일(화) 14:00 신암성당
포항지역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7월 21일(월) 11:00 죽도성당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미사	7월 23일(수) 10:00 죽도성당
한티순교성지후원회 월례미사	7월 21일(월) 11:00 수성성당		7월 23일(수) 14:00 토마스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7월 22일(화) 14:00 계산성당	김천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7월 23일(수) 10:00 평화성당

성소 | 피정

꽃동네 성소자 하계 수련 대회

기간: 8.8(금) 17:00~10(일)

장소: 음성꽃동네 사랑의연수원

대상: 고등~35세 심신 건강한 미혼남녀

참가비: 3만 원

문의: (043)879-0283~4(전화신청)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한 ME 주말

322차: 7.25(금)~27(일)

323차: 8.15(금)~17(일)

장소: 한티 피정의 집

문의: 983-0521

2박 3일 무료 피정(작은 예수회)

기간: 7.25(금)~27(일)

장소: 가평 작은예수회마을

내용: 모든 질병과 어두움 버리기

출발: 대구시민회관 11:40

문의: 박테레사, (010)2646-0583

제26차 신규약 성경통독 피정

기간: 7.26(토)~8.3(일)

장소: 오순절평화의수녀회 루하피정센터

문의: (055)351-2286 / (011)758-3572

성모기사회(7080 정기 모임)

일시: 7.27(일) 14:00

장소: 곧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문의: (010)3525-9458

첫 토요일 성모 신심 피정

일시: 8.2(토) 10:00, 다사성당

주제: 영광의 어머니

일정: 미사, 면담, 고해성사

특강: 문봉환(야고보) 신부

젊은이 빈마음 피정(2박 3일)

기간: 8.22(금)~24(일) / 선착순

장소: 홍천 성빈센트 기도의 집

대상: 만30세 이하 미혼여성 / 3만 5천 원

문의: (010)8833-8107

<http://www.vincent.or.kr>

교육 | 모집

글라라 영성 공개 특강

일시: 7.26(토) / 8.30(토) 14:00~17:00

장소: 프란치스코눔(월배성당 뒤)

강사: 김찬선 레오나르도 신부(OFM)

문의: (010)3440-0304

예수마음배움터 영성수련

2박 3일: 8.1(금) 17:30~3(일)

4박 5일: 8.4(월) 14:00~8(금)

8박 9일: 8.11(월) 14:00~19(화)

이나시오: 8.11(월) 14:00~19(화)

문의: (031)946-2337~8

수원교구 사이버 성경학교 입학생 모집

기간: 6~8월(9월 개강)

대상: 성경에 관심 있는 모든 분

네이버: 가톨릭 사이버 성경학교

문의: 성경사목수녀, (010)7249-7966

바오로딸 독서치료-행복한 책임기

일시: 8.27부터(매주 수) 14:00~16:00

장소: 공평동 시내 바오로딸 서원

주제: 자아성장, 신앙성숙, 나를 찾아서

회비: 10주 12만 원

문의: 김에반젤라나수녀, (010)2658-5185

마음으로 책임기에 초대합니다

일자: 9월부터(매주 금)

시간: 19:00~21:00(10주간)

장소: 남산동 성바오로 서원

대상: 남, 녀(30~50대 신자)

문의: 성바오로수도회, 256-4592

미소나라 출장부페
예식부페, 기업제행사
각종 야외행사, 성당행사, 장례부페
대표 양 애 향(마리아)
사회적기업 (주)서구웰푸드
문의전화 053)555-4843
<http://www.미소나라.kr>

성요셉요양병원
(구. 논공가톨릭병원)
매일미사, 상시고해·병자성사, 봉성제, 병신순회 기도
치매·중풍·노인성질환 전문 클리닉 운영
24시간 전문간병인·의사·간호사 상주 진료
친환경적 병실 운영, 양·한방 협진
병원장 장 효 원(요셉) 신부
TEL 053)615-4871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
안심내과
〈30년 전통의 (구)이상계 내과〉
내과 전문의 5인 진료 765-3771
심장·순환기, 소화기·내시경 전문
공단검진, 암검진, 각종 종합검진
이상계(바오로), 김지영(대건안드레아) 외 3인
들안길 네거리 ~ 황금성당 사이

국가등록업체·보증보험가입업체
노블코리아
미혼 남녀의 백년가약! 결혼
미팅회수 채움이 아닌 성혼에 주력!
상담수료증 이수자인 사회복지사가 상담함.
053)639-8998 박영주(젤마) 박요안나
상인점 홀플러스 맞은편 / 범어동 경신교 입구

행복한 재할·요양 병원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원목실 운동, 월례미사 봉헌
원목팀장 김 미 형(요셉피나)
이 범 수(대건안드레아)
☎053)426-6000 (중구 보건소 옆)

콕앤신 이비인후과
진료과목 - 성형외과·소아청소년과
의학박사/원장 신재훈(루카), 콕동석(아우구스티노)
코수술 전문병원 (축농증, 비염, 코골이, 코성형)
(1호선 성당역 3번 출구)
☎ (053)638-7582(치료빨리)
<http://www.ksnose.com>

2484 익스프레스
칠곡 313-2484
서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수성구 761-2484
반역기(바오로) 011-514-3855

해아림한의원
소아클리닉 - 틱, ADHD, 야노
마음클리닉 - 공황, 불안, 불면
원장 김 대 역(안드레아)
예약 : 053)751-0071 2호선 수성구청역
4번출구 승원학원옆

행사 | 모임

15학년도 베드로관(소신학교) 지원자 모집

고등학교 전(全)과정을 담당사제와 함께 기숙사에서 공동체생활, 학업은 무학고등학교(경북 하양 소재) 재학 대상: 사제성소를 희망하는 중3 남학생
문의: 854-2085
keyofpeter@naver.com

전례꽃꽃이연구회 월례회

일시: 7.21(월) 14: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회합실
네이버: 대구대교구 전례꽃꽃이연구회

뿌에리 칸도레스 초청 연주회

일시: 7.24(목) 19:30
장소: 수성아트피아 용지홀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교육 | 모집

제6회 젊은이 음악 캠프

기간: 8.23(토)~24(일), 청통수련원
주관: 교구 청년국, 회비: 6만 원
대상: 13~35세 이하의 봉사자
인원: 80명(선착순 접수에 한함)
접수: 다음카페(//DCCM) 참조

대구소공동체의날 개최 및 수기공모

소공동체의날: 10.11(토) 10:00
장소: 교육원 다동 대강당

회비: 각 5천 원, 마감: 9.23(화)까지
수기공모: 소공동체에 활동 체험수기
공모기간: 9.12(금)까지
문의: 교구 사목국, 250-3056

대안교육 산자연학교(학력인정) 여름캠프

일시: 8.4(월)~7(목) 3박 4일
대상: 초5~6학년, 중1~2학년
접수: 7.14(월)부터 선착순 마감
문의: 교무실, (054)338-0530

16회 대학생 필리핀 해외봉사어학연수

2차: 8.24(일) 8, 12주
3차: 9.20(토) 8, 12주
기타: 캐나다, 호주 연계연수 가능
해외봉사 인증서(학점인증가능)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사회교육 프로그램 강좌 개설

개강: 9월 첫째 주
내용: 황종렬 박사의 5차원영성수련
장경화 선생님의 부모-자녀 프로그램
(부모리더십/학습클리닉/칭찬프로그램)
문의: 가톨릭근로자회관, 253-1313

칠곡, 평화의 누릿길(예술과 함께하는 토요일: 작은음악회 등)

출발: 9월 20, 27일 / 10월 4, 11, 25일
11월 8, 15, 22, 29일 / 12월 6일 9:00
이동: 버스 / 단체신청가능
주최: 칠곡군 / 참가비: 2만 원(중식제공)
문의: 대구PBC, 251-2610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플룻, 바이올린, 오카리나, 통기타,
우쿨렐레, POP, 초크아트, 톨페인팅,
백세건강강좌(무료)
문의: 476-6211

채용 | 안내

바오로동자녀심흥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채용

근무형태: 3교대
서류: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이력서
제출: 방문, 팩스, 전화상담 가능
주소: 경북 칠곡군 동명면 경북대로 842
문의: (054)972-5901-3

(주) 매일상조 영업사원 채용

매일신문사에서 직접 운영하여
믿을 수 있는 매일상조에서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427-4400(면접 후 채용)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4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교구법원 공시(253-9550)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신종익(다니엘), 김대진

2014년도 대구대교구 주소록 판매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7~9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소(루시아)
591-2424 656-9911
010-2008-2329

국내 최초 「아픈증세 상담하고
좋은의사 소개하는」
LDK 의원
원장 병리전문
이동구 (마티아)
진 대구의료원 원장
범어네거리 4번 출구
Tel. 053)755-7775
www.ldkclinic.com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틀리아)
지하철 2호선 대구은행역 1번 출구
국민은행 옆 두번째 건물 4층
TEL 743-4488 FAX 744-1594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길!
수성성당 연도실
교우 상 당하면 곧바로 연락주세요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016-518-2223 010-8345-9479
이주석 (요셉)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 상 윤(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7-508-4328
010-2002-4328

한투어
(주)한투어
성지순례전문
스페인, 포르투갈 성지순례(9월 28일 출발)
이스라엘, 이탈리아 성지순례(10월 21일 출발)
☎ 053-427-7090
안 요한, 김 마리아막달레나

인공신장실
야간투석
서부영남내과
영남의과학대학교 원장 권영진 (안드레아)
☎ 053)656-7533

일본 성지 순례
이라도, 나가사키 / 오미타, 유우인(4월)
※ 출발일 - 09월 24일(마감)
- 10월 22일, 29일
- 11월 12일, 26일
- 12월 03일, 17일
T. 053)253-3399
www.sungjitour.com
(주)성지여행 포털레(유스티노)